

-학교생활목표-
자율(自律) 창의(創意)

高

고산고등학교 학교소식

2012. 4. 2.
교장 이정태
교감 채규상
편집 임창범

(우)565-861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551-23 (교장실)262-4089 (교무실)262-4370 (행정실)263-4371

학부모님께

만물이 생동하는 4월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동문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1981년 개교하여 금년 2월 졸업식까지 29회에 걸쳐 졸업생 5,282명의 인재를 배출하였고, 졸업생들은 현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금학년도에는 12학급 292명의 학생들이 미래의 푸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난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2012학년도 교육 활동을 알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교는 2012학년도부터 인문고로 체제를 개편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장단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1억 4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의 교과교실을 구축한 데 이어 금학년도에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각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관과

강당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교 숙원사업인 시청각실이 완공되면 학생들의 학습 활동,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은 물론 인성교육과 자치활동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1학년도 전국 100대 학교문화 우수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금학년도에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치 문화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되는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및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 인성 교육, 특기적성 교육, 진로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본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본교의 교육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학기 교직원 이동

■ 전입

이정태 교장선생님	고산중에서
임병하 선생님(물리)	이리공고에서
안효선 선생님(영어)	삼례공고에서
이원섭 선생님(특수)	특수학급 증설
손운호 선생님(영어)	교과교실제 운영
유문종 선생님(수학)	교과교실제 운영
황석훈 선생님(행정보조)	교과교실제 운영

■ 퇴임 및 전출

한일석 교장선생님	정년퇴임
김중언 선생님(컴퓨터)	김제여고로

2012학년도 입학식 거행

지난 3월 2일 본교 강당에서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의 축복 속에 117명의 신입생들은 고산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였고, 재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하였습니다.

2012 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2012학년도 교육계획 설명회가 3월 21일 본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63명의 학부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학교장 인사, 교직원 소개, 2012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설명, 학부모운영위원 선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운영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학급별로 자녀교육상담이 있었습니다.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본교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위원 5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된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4월 12일 개최되는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 9기 학교운영위원 명단 >

- 학부모위원 : 박춘성, 김규성, 이승용, 정광순, 김복녀
- 지역위원 : 남권희
- 교원위원 : 이정태, 고상덕, 조인수, 김수익

4월의 행사

10(화)	전국연합평가(3학년)
11(수)	국회의원 선거일
12(목)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17(화)	소변검사(2,3학년)
20(금)	진로진학 특강(우석대)
24(화)-26(목)	영어듣기평가(1-3학년)
26(목)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월)-5.2(수)	1차고사

학생회 임원 명단

학생회장	진석환(3-2)	부회장	김하늘(2-1)
총무부장	이예관(3-1)	총무차장	송주희(2-4)
학예부장	백승윤(3-1)	학예차장	김예찬(2-1)
체육부장	최강민(3-1)	체육차장	김건형(2-3)
선도부장	김대용(3-3)	선도차장	서이레(2-1)
여학생부장	황서정(3-1)	여학생차장	신다송(2-1)
선도부원	이성훈(3-1)	임휘종 이수환	정연수 조현
	서건영 양웅철(3-2)	김현우	김준수(3-3)
	손민웅 임도는	정재현(3-4)	

학급 실장 부실장 명단

학급	실장	부실장	학급	실장	부실장
1-1	장현도	서준우	2-3	이동현	이영신
1-2	이재현	홍준영	2-4	송주희	윤완철
1-3	오은주	박미정	3-1	황서정	박준우
1-4	이광림	박세휘	3-2	유성재	양웅철
2-1	박은비	박혜원	3-3	김은진	김령진
2-2	이동근	정현민	3-4	이승재	송은솔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

2012학년도부터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교과와 교과교실제가 운영됩니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환경을 구축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 및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교과교실제 사업에 본교에서는 148,030,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 교과와 교과교실을 구축하였습니다. 교과교실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전자칠판, 컴퓨터, 실물화상기, 프린터, 복사기, 교수-학습 소프트웨어 등 교과와 특성에 맞는 첨단 교육 기자재를 갖추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교과교실 활용으로 사진으로 광고읽기, 신문읽기 및 다양한 수업자료의 제공하고 있으며, 수학과에서는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별 학습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도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전용실과 연계하여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보통반, 기초반, 향상반의 2+1학급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부합하는 개별화 지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과교실제 행정보조요원을 배치하여 자료 제작 및 기자재 관리가 수월해져 교과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옴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본교의 인문계 전환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옴므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년별 1학급 총 3개 반을 편성하여 방과 후 저녁식사에 이어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2시간의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 학부모의 자녀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복착용에 앞서 1학년 대상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교 시청각실 신축

본교 숙원 사업인 시청각실이 신축됩니다. 시청각실은 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강당 앞 주차장 자리에 528㎡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금년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1억 5천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본관 및 강당 리모델링 공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담실 운영 안내

상담실에서는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사 이버상담, 전문상담기관 연계상담, 학부모상담 등의 다양한 상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성문화 인식 교정을 위해, 지식전달 위주보다는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과 자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교원 책임상담제 운영

1교사 2학생 결연으로 본교 교직원과 6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책임상담제가 운영됩니다. 매월 22일(둘이서 두 손 잡는 날)을 상담의 날로 정하여 월1회 이상의 상담활동을 통해 결연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하고자 활동을 전개합니다.

진로탐색 및 심리검사 실시

지난 3월 20일 1학년을 대상으로 Holland(진로탐색)검사 실시하였고, 3월 28일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LCSi 인성검사를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MLST 학습전략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드림레터 발송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직업 및 학과 정보 제공 등 진로교육 정보와 자료의 보급을 통하여 자녀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드림레터'를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발송되는 '드림레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학생 결핵 검진 실시

지난 3월 16일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결핵협회 검진차를 이용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학생 176명 전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전주시 거주 학생 비율 높아

2012학년도 본교 재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전주시 거주 학생이 161명(55.1%)으로 완주군 거주 학생 129명(44.2%)보다 32명 많습니다.

구분	재적	전주	고산	완주기타	기타지역
학생수	292	161	32	97	2
비율	100	55.1	11.0	33.2	0.7



고산향교육공동체 2012 교직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내 인생의 새로운 계단

1-1 이예찬

향기 나는 고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산지역의 교육기관, 유관단체(기관) 및 지역사회 등이 연대하여 구성한 고산향교육공동체(대표 조만수, 여태권)는 지난 8일 고산면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2012 교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화합과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초, 삼우초, 고산중, 고산고, 전북푸른학교, 고산지역아동센터, 고산산촌유학센터 등 고산 지역 교육기관의 교직원들과 문채룡 완주교육장, 고산면 최성호 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고산면 내 교육기관의 교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견례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근석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사, 격려사, 환영사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조만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오늘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고산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고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격려사에서 문채룡 교육장은 "혁신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다"면서 "고산향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산향교육공동체 2011 사업보고에서는 고산면 지역발전위원회 출범, 설문조사 실시, 교육포럼·교육한마당·교육분과위원회 개최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이 보고됐다.

또한 고산향 교육포럼을 비롯해 국악합주단, 문화동아리 등 학생동아리 활동, 지역교사와 학부모 모임, 지역교육지원단, 지역교육신문 등 올 한해 실시할 세부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교육가족 소개 및 인사를 통해 참석한 각 학교의 교직원들이 단상에 나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호명되지 않거나 잘못 호명 될 때에는 웃음이 한바탕 터져 나오기도 해 처음의 딱딱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촬영을 가진 후 학교별 환영행사 개최로 마무리 했다. <3월 15일, 완주신문>

고산향 학생기자단 운영 협의

고산향교육공동체의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고산향 학생기자단 및 담당교사 모임이 3월 27일 오후 4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한글교실에서 있었습니다.

학교별 인사소개에 이어 2012년 학생기자단 운영 방향 논의가 있었는데 기자단원들의 신문제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에서 편집과 제작까지 학생 주도로 연 4회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기자단 모임은 매월 2,4주 화요일 오후 4-6시 면주민자치센터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산향 학생기자단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생기자단 명단
고산초	조성훈	노현주 박선경 강현아 박찬혁 노지연
삼우초	조형운	박진우 임태현 김재형 최하늘
고산중	임상철	박찬민 현가람 강진아 신은비
고산고	임창범	김나경 김다솜 박민석 이정현
전북푸른학교	이경민	김성현 김민

내가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할 때나 하교를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내게 어느 학교인지 물으시곤 한다. 고산고등학교라 대답하면 순간에 눈빛이 흐려지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말을 이어가면 그분들은 이내 나를 대견해 하시는 것 같다.

내게 있어 고산고는 도약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주 지역 인문계를 갈 지, 그저 허송세월을 할 지 갈림길에 서있었다. 결국 나는 허송세월이란 길을 걸었고, 그 길 끝엔 낭떠러지가 있을 줄 알았지만 고산고라는 새로운 계단이 있었다.

난 지금도 가끔 '내가 만약 전주지역 인문계 학교에 갔었다라면'하고 상상을 해본다. 집이야 물론 가깝겠지만 버스를 타고 오가는 길에 사색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쯤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 부담과 압박감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급식도 아주 훌륭한 편이고, 내가 보기엔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면서 나에게 맞는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학교 첫 인상

1-3 이승재

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입학하기 전 나는 정말 많은 생각과 결정 끝에 학교를 선택하였다.

작년 12월 면접 때 처음 등교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첫 인상은 산을 뒤에 두고 앞에는 논과 밭이 많아 말 그대로 시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면접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2월에 신입생 진단평가를 봄으로써 교실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중학교 교실과 다름없었다.

우리 학교는 농촌학교라서 그런지 친환경 농산물로 조리한 점심 급식이 정말 맛이 있고, 선생님들도 수업에 열정을 쏟으셔서 수업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사실 우리 학교는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온다는 소문도 있으며, 내 개인적으로는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한다. 일부 친구들과 어른들은 우리 학교 이미지를 안 좋게 보기도 한다. 하지만 통학버스가 있어 등하교 조건도 비슷하고, 산 좋고 물 맑은 전원적인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대학 진학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좋은 수업 태도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목표를 꼭 이루겠다.

※ 학교소식을 보시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적어 주세요. 학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후배에게 바란다

2-1 박은비

신입생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하려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제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학교 규칙을 어기는 등 옳지 못한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쉽사리 저지르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꼭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후배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나중이라도 후회할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며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현재를 중요하게 하고 생각을 더욱 깊고 신중하게 하며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지금은 선후배간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에게 바란다

2-3 김건형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낙담하지만 그건 괜한 핑계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후배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다.

거부하지 말라. 분명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뭐 하나를 시키면 ‘싫은데요?’ ‘왜 하필 전데요?’ ‘저 이런 거 못해요’ 하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물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왜 어째서 일을 시키는 것일까? 어째서 하기 싫어하거나 힘든 일을 시키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기에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생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싫어하더라도 한번쯤 해 보라.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뭐든 하려고 하면 다른 애들과의 열등감으로 인해 뭘 하려 해도 스스로 낙담하고 괜히 나중에는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욱 노력하라고 하고 싶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다. 삶의 방식은 다양하다. 어떻게 살아가든 스스로의 선택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저 포기하지 말라. 노력하면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보상은 존재한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성공한 이들은 항상 있었다. 그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을 해도 좋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꿈은 건축가

3-1 류수정

나의 꿈은 건축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중학생 때만 해도 배드민턴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평소 취미로 집을 그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건축가가 되어도 좋겠다’라며 칭찬을 해주었다. 나는 친구 칭찬 한마디에 건축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배드민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건축가는 내가 꿈꾸

어 온 직업이다. 책도 읽어보고 집도 그려 본다. 실내디자이너가 되면 기분이 어떨까? 또 내가 디자인한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상상도 해 보았다. 내가 만든 집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꿈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다. ‘건축가 되기가 쉬운 줄 아냐’고 하면서. 쉬우면 개나 소나 다 된다고 그런다. 물론 나는 많이 부족하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은 아니다. 어렵더라도 꼭 되고 싶다. 그런 소리는 들어도 못들은 척 하고 만다.

나는 실내 디자이너가 되어서 예쁜 집을 만들어 부모님한테 선물도 해드리는 게 나의 소망이다. 넓은 집, 넓은 정원 나만의 작은 텃밭에 그네에 앉아 바람을 맞아 보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못 되더라도 나만의 자리에 앉아 집을 그리는 그런 회사원으로도 만족한다.

꼭 실내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나는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내 미래를 그려 본다. 엄마는 그러셨다. 말만으로도 행복하시다고. 그 한마디에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친구는 내 편이다.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무척 좋았다.

꿈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읽지도 않았던 책도 보게 되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었던 내가 이제는 자리에 앉아 집을 그린다. 건축가 되려면 우선 건축에 관한 책도 보고 집도 디자인 해보고 가구도 배치에 봐야 한다. 그리고 계획도 세워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까 걱정한다. 나는 3학년인데 지금 와서 포기 한다면 내 인생의 목표도 없어질 것이다.

나는 계속 내 꿈을 밀고 나갈 것이다. 노력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것이다. 그래서 나의 꿈은 풍성한 사과나무이다. 꼭 이루고 싶다. 꼭 이룰 것이다.

나의 꿈 나의 진로

3-3 인해인

나의 꿈은 실내디자이너다.

2학년 봄 방학 때 실내디자이너과라는 학과를 들어가고 싶어 자세히 알아보고 아빠한테 말을 못한 채 한 달을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미술학원을 보내 달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집 형편을 생각하면 아빠한테는 큰 부담이라는 것도 알고 솔직히 동생들 생각하면 나하나 위해서 말한다는 건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고3인 내가 먼저 급하다는 생각에 말쑥을 드려 아빠를 설득했다. 아빠는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생각을 하다 드디어 학원을 보내주셨다. 우선 실내디자이너과를 들어가려면 우선 실기대회와 그림 그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자료도 열심히 찾아야 한다. 열심히 실기 준비를 해야겠다. 또한 학과 공부도 중요하다.

늦었지만 서울예술대 실내디자이너과로 진로를 정하고 지금 준비 중이다. 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자면 장점은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고 재능이 있어 내 집도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 단점은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믿고 있다.

난 내 꿈을 위해 수시 쓸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원하는 학과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그때까지 날 믿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멋진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